

수출 호조가 예상되는 베트남 해산물

(2014.3.18. 출처: VNS, 베트남 해산물 수출자 협회)

'14년 연초 베트남의 해산물 어획량 급증으로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

'14년 베트남의 해산물 수출은 연 목표인 69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, 어획량 증가 외에 수출호조에 긍정적 요인 대두

- 주 수출 시장인 일본의 베트남산 해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
- 우크라이나 등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가능

최근 빈롱 지역의 흑점메기 양어장이 국제 인증기관 ASC(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)로부터 국내 최초로 인증 획득

- ASC 인증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의미
-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인증업체의 시장 확장 용이

○ 전년동기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'14년 1-2월의 해산물 어획량과 일본의 베트남산 해산물 수입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베트남의 어업이 ' 14년 수출 목표를 쉽게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

- 베트남 농림부(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)에 따르면 '14년 1-2월 해산물 수출액은 약 9.19억달러로 전년동기비 23.5% 증가
- 보통 베트남의 해산물 수출은 긴 구정 연휴가 있는 연초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급증 현상은 매우 이례적임

○ 베트남 해산물 수출액의 26.67%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비 89% 증가했으며, 일본(17.85%), 한국(29.27%), 호주(31.45%)로의 수출 또한 크게 증가

- 동기간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중국과 태국뿐으로 각각 37.8%, 7% 감소

○ 베트남 해산물 수출·생산자협회(VASEP:The 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)는 '14년 상반기에 해산물 어획 호조가 예상되며 이는 69억달러 내외인 '14년 해산물 수출목표 달성에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

- 주요 수출 해산물은 새우(30억달러), 흑점메기(16억달러), 기타(22억달러)

○ 일본의 베트남산 해산물 수입규제 완화로 인해 '14년에도 변함없이 새우가 주요 수출품이 될 예정이며, 흑점메기 또한 수출 시장의 확대에 의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- 최근 우크라이나는 베트남 해산물 10개 생산업체에 수출 라이선스를 발행

- 베트남 농림부는 해산물이 국가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만큼, 위생과 품질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쏟을 예정이며 베트남산 해산물에 대한 상표권 지정으로 해외시장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
- 빈롱 메콩강 삼각지 지역에서 수출용 흑점메기를 양어하고 있는 3개의 양어장이 국내 최초로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(ASC) 인증 획득
 - 해당 양어장의 면적은 총 36.7ha이며 Vung Liem 과 Tra On 군(郡)의 Co Chien社, Nam Vang社, Nam Song Hau社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
 - 베트남 정부 산하 프로그램을 통해 Global GAP(Good Agriculture Practices)와 ASC기준에 적합한 양어장 건설을 지원받아 온 업체임
 - 2010년 World Wide Fund(WWF) 와 the Netherlands' Sustainable Trade Initiative(IDH)에 의해 설립된 ASC는 사회적,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해산물의 양어/양식을 촉진하기 위해 해산물 양식업체, 제조업자, 기업, 과학자, 자연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국제기관
 - ASC에 의해 인증된 업체는 생산방식의 변화와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받게 되며, 이를 통해 양어/양식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음
 - 또한 인증 업체는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, 이를 통해 기업이 공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리게 됨
 - 현재 빈롱 시에는 239개의 양어장이 존재하며 이는 58개의 기업과 192개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